

둘레 370cm 대형 호박이 떴다

'박과 채소' 챔피언 선정

농촌진흥청, 박종학씨가 출품
16일 국제종자박람회장서 시상식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17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의 대상으로 박종학 씨(전남 영암)가 출품한 대형 호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호박은 둘레 370cm, 무게 31.9kg으로 모양이 안정적이고 색이 균일한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 대회에서 뽑힌 챔피언 가운데,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 대한민국 신기록을 세웠다.

총 108점이 출품된 이번 대회는 품종 특성과 크기, 무게, 겹모양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 1점, 금상 3점, 은상 2점, 동상 2점, 장려상 2점, 총 10점을 뽑았다. 금상은 충북 보은군 류재면 씨의 박(둘레 106cm, 24.3kg), 광주광역시 박진희 씨의 호박(둘레 290cm, 237kg), 경남 사천시 김희 씨의 동아(둘레 128cm, 무게 79.9kg)가 차지했다.

시상식은 16일 농업기술실용화재



박종학씨가 출품한 대형 호박.

단 종자산업진흥센터 국제종자박람회장에서 열린다. 대상에는 농촌진흥청장상과 300만 원의 상당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출품작은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감상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허윤찬 과장은 "이 대회는 농업인들이 정성들여 재배한 다양한 박과채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시상식뿐 아니라, 다양한 박과 채소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일건설, '익산 오투그란데 글로벌 카운티' 본격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3.3㎡당 808만원 책정 내일 특별공급

제일건설은 지난 11일 '익산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는 익산시 평동로632 일원에 소재한 제일건설의 상설 주택전시관에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최고 20층 3개 동, 총 197세대 규모이며 전세대가 실수요에게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타입도 A부터 D타입까지 평면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익산 오투그란데 글로벌 카운티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 단지는 3.3㎡당 808만원에 책정됐다. 이 가격은 지난해 6월 인근에서 분양했던 아파트가 3.3㎡당 848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당 40만원 가량 낮은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

계약금은 84㎡A, B타입은 1,000만원, C, D 타입은 1,500만원 정액이며 중도금은 타입 상관없이 전 세대 무

이차 대출 혜택(분양가의 60% 이내)이 주어진다.

실제 단지는 남향위주의 배치와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Bay(일부세대) 혁신평면이 적용되며 팬트리(일부세대), 보조주방(일부세대) 드레스룸을 적용하는 등 특화된 공간설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최상층에는 북향설계(일부세대)를 적용해 더 여유롭고 다양한 공간활용을 가능하게 해 입주민의 편리한 주거 생활을 도울 전망이다.

단지 내에는 친환경 테마가 적용된 편의·휴게시설이 계획돼 있다. 단지 내에는 사계절 내내 쾌적한 조경이 조성되고 가족들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에디슨파크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정대비보다 높은 주차대수를 확보해 주거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단지의 또 다른 장점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는 2020년 3월 개원 예정인 외국어교육지원센터는 익산시와 전북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정책사업으로 지역 학생 및 교사, 시민들에게 영어, 중국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인 강사와 함께 진행하며 진로체험, 다문화 과정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예정으로 학부모 수요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익산의 전통주거지로 손꼽혀왔다. 여기에 다양한 개발 효과로 인해 미래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국도를 이용한 익산시청 등 도심권 및 전주, 군산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익산역 KTX, SRT를 통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가까이에는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하고 이리초, 이리여중, 이리고, 이리여고 등 다수의 학

교도 도보거리에 자리잡고 있어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으로도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CGV 등 생활편의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다.

단지는 배후수요도 탄탄하다. 인근에 익산 국가산업단지,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약 1만 6천 여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53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 직주근접 입지를 자랑한다.

'익산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는 11일 오픈 이후 16일 특별공급 이후 17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후 24일 당첨자 발표 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JB어르신 문화센터 1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1일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안골노인복지관에서 'JB어르신 문화센터 제1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 안골노인복지관 박주중 관장, 전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완수 부회장, 전라북도의회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부의장, 최명환 안후1동장 등이 참석했다.

안골노인복지관의 북향심은 주별일대 어르신들에게 서예한글, 사군자, 수채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책상과 의자, 부족한 수납장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윤상 기자

협동조합 대상 참여조합 모집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2019 협동조합 대상'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공개 모집한다.

협동조합 大(대상) 모집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홍보지원을 통한 판촉지원과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긍정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익산 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 송원배), 전주우피스문구협동조합(이사장 권희택),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이사장 이재덕), 한국주유리협동조합(이사장 정은희) 등 4개소가 선정되었다.

참가자격은 2018년말 결산을 완료한 전북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참여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18일 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진원은 서면심사·현장실사·대면심사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총 4개의 협동조합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정보보안 능력 세계가 '인정'

국민연금공단, ISO27001 재인증 획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국민연금 전산시스템'이 정보보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국제 표준 정보보호 인증인 ISO27001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14일 밝혔다.

ISO27001 인증 수여식은 오늘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되며, 국민연금공단 김대순 정보화본부장(CISO), 국제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Lloyd's Register)의 Paul Butcher (Managing Director), 유상근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으로서 정보보안 정책, 암호화, 접근통제 등 총 14개 영역, 114개의 세부 기준에 따른 공인 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수여된다. 공단은 국제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ISO27001 인증을 최초 취득하였으며 올해 재심사를 통과하여 앞으로 3년간 인증 효력을 받게 된다.

이번 인증을 통하여 공단은 1100억 원이 넘는 국민의 소중한 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



는 한편, 향후 공단 글로벌 ICT 수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 김대순 정보화본부장(CISO)은 "이번 ISO27001 인증을 통해 국민연금의 국제적인 정보보호 역량을 입증하게 되었다"며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견고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장년 예비창업자 열정에 기름 붓기

도·경진원, 창업교육 6기 창업경진대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14일 전라북도 소상공인회관에서 '중장년 창업교육 6기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년 창업교육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창업경진대회는 창업전문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창업의지, 실현가능성, 학습태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우수 수료생 1업체를 선발, 최대 5백만원의 초기사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대회는 중장년 창업교육 6기 창업전문과정 교육생 28명이 참석하여 본인의 열띤 기량을 뽐냈다.

대회를 마친 후 교육생은 수료생으로

전환되어 경진원의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수료생은 창업 후 개인 신용등급과 전신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창업자금 특례보증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 홍보영상 제작, 사업화자금 등 창업초기 경영안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중장년층에게 창업이란 앞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어두운 터널일 것"이라며, "중간에 길 잃는 이 없이 모두가 성공창업의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업경영체 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

농관원, 어제부터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국립농산물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행정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해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nx.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하여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간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 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이스타항공, 기내지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실시

이스타항공이 기내지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보호 활동에 나선다.

이스타항공은 14일 오후 2시부터 내달 15일까지 업사이클링 기업 '큐클리프(CUECLYP)'와 협업하여 네이버 해피빈(happybean.naver.com)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내지 업사이클링 여행 용품을 제작 판매한다고 밝혔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이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새 제품으로 부활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매달 항공기에 탑재되는 기내지는 승객들에게 다양한 항공 정보와 여행 소식을 전달하고 시즌이 지나면 폐기 처리된다. 이스타항공



은 버려지는 기내지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에 주목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해피빈 이스타항공 기내지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펀딩 페이지(happybean.naver.com/crowdfunding/intro/H000000156669)에서 확인 및 참여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동화마을 컨셉에 맞춰 복장을 입고 춤을추는 참여자들.

완주군과 '어울링더울링 축제' 한마당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개최
'동화마을' 컨셉으로 마련

지역주민들을 위한 완주군 공동체 축제의 장이 전기안전공사 앞 마당에서 펼쳐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지난 12~13일, 전북혁신도시 본사 대운동장에서 '어울링더울링 축제'를 개최했다. '공동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는 '동화마을'을 컨셉으로 마련되었

다. 완주군 96개 공동체가 참여한 이날 축제에는 동화속 주인공 복장을 한 참여자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어린이 인형극, 윷놀이, 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공사가 마련한 전기안전 체험부스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롤러게임,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OX 퀴즈 등이 인기를 끌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3회 째를 맞은 올해는 2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